

## 항포구 뒤덮은 도루묵 겨울별미로 '인기만점'



항포구 뒤덮은 도루묵  
겨울별미로 '인기만점'

올 겨울 양양의 항포구는  
제철을 맞은 도루묵이  
풍어로 넘쳐났다.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룬 도루묵은  
겨울철 별미로 인기만점이다.

도루묵 축제로 명성을 드높인  
물치항은 모처럼 풍어를 맞아  
어민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사진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최대영



# 오색케이블카 재선정 가능성 높다

### 지난 10일 환경부 등 현지실사...“긍정적 입장 보여”



우리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최근 환경부의 현지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범지역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연내 발표될 것인지 아니면 해를 넘겨 내년 1월 선정될 것인지 발표 시점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군과 강원도는 지난 10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KEI, 민간전문위원, 원주지방환경청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현지실사단과 함께 오색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예정 부지를 둘러봤다.

실사단은 이날 폭설과 한파를 뚫고 3시간 가량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양양군이 변경한 상부정류장 위치와 조망권 확보 등 중점사항을 체크하고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악천후 속에서도 상부

정류장 예정부지 주변에 있는 고목 등 일부 자연식생대의 보호대책과 함께 향후 1~2차례 현지조사를 위한 표식 설치를 주문해 환경부의 적극성을 뒷받침했다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이날 현지실사를 마친 뒤 참여하지 못한 7명의 민간전문위원 등 관계자들과 1~2회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혀, 연내 국립공원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내년 1월 발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리군은 고완주 부군수와 김호열 미래전략과장 등이 이날 현지실사단과 함께 오색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예정부지에 올라 변경한 위치와 이에 따른 경관, 스카이라인 훼손 여부, 적정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타당성을 역설했다.

김호열 미래전략과장은 “우리군이 10년 이상을 추진해온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가능한 연내 확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환경성과 경제성, 기술성 등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정부도 조속한 처리에 나설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도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빨리 처리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데다, 현재 환경부의 기준에 맞춰 재추진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서 우리군이 유일해 선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오색주민들은 “엄동설한 속에서도 주민들의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조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고 확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재추진이 당초 대선과 맞물려 일정이 늦춰지거나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았지만,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민간전문위원 등 관계기관이 지난달부터 일정대로 진행하면서 일부 우려감은 기대감으로 급변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의 미래전략과 오색케이블카담당 670-2530

# 2014년 국비확보 선제적 대응

### 우리군, 보고회 열고 신청액 70% 목표

우리군이 그동안 체계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가운데 2014년도 국고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열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은 올해 초부터 국비확보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담당부서별로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것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 2014년 국비확보에 팔을 걷고 나섰다.

우선 그동안 추진해오다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언어과학관 건립사업, 해양심층수 테라피시설 설치사업 등 14건의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회를 개최하고 빠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신규 국비사업의 경우, 부처의 담당자와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교감이 중요한 만큼, 조기에 국비사업 목록을 작성하고 개별 사전협의 등을 통해 중기계획 수립부터 적극적인 반영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군비 부담액 급증으로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무조건적인 국비확보를 지양하는 한편 군의 비전과 부합되는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적 추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특히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내년에는 총 1,093억원의 국비를 신청해 59%인 640억원을 확보했으며,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해 왔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2014년에는 신청액 대비 70%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기금과 광특재원을 중심으로 늘려나감과 동시에 면소재지 정비사업 등 자치단체 재량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연속성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670-2108



# 의 정 소 식

## “하조대 희망들 대체부지 마련하라”

### 우리군의회 행정사무감사...“산지전용 후 원상복구 철저”



우리군의회(의장 김일수)는 지난달 29일부터 7일까지 제 18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택철 부의장은 “양양읍 남문리 등 시내권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 구간 내 미시공 시설 230개소 중 70% 이상이 지대가 낮아 오수관로 연결 불가능으로 인해 남대천의 수질 오염원이 되고 악취 등으로 심각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오세만 의원은 “하조대 희망들 문제에 양양군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주민들의 신뢰 역시 크게 떨어졌다”며 “최근 현남면 북분리도 희망들에 대해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민불편과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수 의원은 “우리군이 관광지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낙산지구는 현재 폐허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다”며 “낙산비치호텔의 정상화와 부도가 난 프레아 낙산콘도의 회생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갖고 나서달라”고 했다.

김우섭 의원은 “현남레미콘 공장 허가와 관련해 조건부 승인 뒤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허가를 취소했지만 결국 행정심판에서 허가처분을 받았다”며 “최초 잘못된 행정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주민불신을 초래하게 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최홍규 의원은 “택지개발 예정 후보지인 현남면 인구와 동산지구의 경우, 동해·동서고속도로 개통 등에 따른 접근성 개선으로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이 충분하다”며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물치·강선지구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박정숙 의원은 “산지전용 후 불법적으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호우나 폭설 시 다시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체계적인 지도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바,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에 나서라”고 질타했다.

▶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670-2801

## 우리군 지방물가안정 최우수

### 국비 1억5천만원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우리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2012지방물가안정관리평가결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군은 지난 11월 27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2012년 전국 시도 물가담당자 워크숍에서 ‘2012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해 인센티브로 국비 1억5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워크숍에서 우리군은

관내 주요마트를 대상으로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을 홈페이지에 비교, 공지하고 물가·상거래 감시요원을 상시 운영해 지역별, 마트별, 업체별, 품목별 가격동향을 소비자들이 수시로 파악하도록 체계화 했으며, 상거래 질서감시 및 계도 활동을 벌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자율경쟁 유도도 물가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농특산물 세일즈 '성공'

## 올해 4억8천여만원 매출 지속 상승세



우리군이 올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공격적인 마케팅 및 세일즈 전략을 추진한 결과 호응을 얻으며 지속적인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농특산물 판로 확보 및 홍보에 나서 총 4억8,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특히 농협과 함께 6회에 걸친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통해 2억7,5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가운데 농협 양재점에서 가장 많은 6천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창동점 3천9백만원 등 축제를 비롯한 행사보다는 상설 판매장을 통한 매출이 훨씬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상설판매장 개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역축제는 물론 여름 성수기 동안 대명솔비치에 설치한 상설 판매장 운영에 따른 매출이 1억5천만원에 달해 지역에서도 틈새시장을 활용한 농산물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올해 양양물의 홍보예산을 확대, 수도권의 홍보물 발송과 함께 시기별 맞춤형 이벤트를 적극 실시해 전년보다 10배 많은 매출실적을 기록함에 따라, 향후 군에서 운영 중인 SNS(페이스북) 및 블로그 운영 활성화를 통해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특산물 소포장재를 지원하고 품질인증을 적극 추진해 고객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설악산 산양산삼, 송이버섯, 버섯류, 쌀 등 농식품 가공 시설 설치를 지원해 부가가치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상품의 구체적인 실 구매층을 대상으로 설정해 상품명에서 디자인, 홍보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농산물유통담당 670-2703

# 보건소 공공의료서비스 '활발'

## 10월까지 8만1,317명 이용...1인당 연 3회 방문

우리군보건소가 종합병원이 없는 열악한 의료체계를 대신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공공의료 서비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보건소를 이용한 주민 수는 총 8만1,317명으로, 연말까지 8만6,000여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만5,373명보다 늘어난 수치로 주민 1인당 연 3회 보건소를 이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의 수익은 5억4,100만원을 올린 가운데 주민들은 방문 때 마다 평균 6,650원을 치료나 검사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치료차 방문한 주민은 3만9,200명으로 이 중 내과가 2만7,79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 6,022명, 치과 1,643명이었으며, 기타 주민들은 검사 2만1,704명, 예방접종 1만1,323명, 방사선 3,966명으로 치료보다는 간단한 검사나 예방접종 등을 위해 방문하는 주민들이 더 많았다.

보건소별로는 군 보건

소(57,177명)가 가장 많았고 현북면(5,814명), 강현면(4,426명), 서면(3,074명), 현남면(2,895명), 손양면(1,728명)순이었으며, 진료소별로는 어성전(1,577명), 수산(1,430명), 석교(1,277명), 입암(1,036명), 서림(882명)순으로 나타났다.

수입별로는 내과진료가 3억6,653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검진(6,707만원), 한방(2,481만원), 치과(1,713만원) 순이었다.

특히 내과진료의 경우 강현면이 다른 지역보다 2~5배로 많았고 한방진료는 현북면이 3~5배 많았다.

관내에는 현재 진료소를 포함해 11개소의 보건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의원이 13개소가 있으나, 양양읍에만 집중됨에 따라 시내권과 먼 지역이 치료를 위해 보건소를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의 경우 현북면 보건소가 전체 한방진료자수의 절반을 넘는 등 주민 선호도가 확연히 높았다.

문의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670-2550

# 매년 사업비 '줄고' 신청 '늘어'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고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군이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의 신청은 늘어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체적인 규모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군은 올해 4억1천만원을 투입해 상반기 52명, 하반기 41명 등 총 93명을 모집하고자 신청을 받은 결과 268명이 신청해 2.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만39세 이하 청년 구직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발해

담당 벽화그리기와 화단 및 쉼터조성, 집수리 및 국도변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하반기 사업은 오는 21일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시간당 4,580원의 임금이 적용돼 평균 65세 미만은 월 74만원, 65세 이상은 39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가운데 신청자에 비해 일자리가 크게 부족해 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국도비 보조도 지난 2011년 8억6천만원에서 올해는 4억1백만원으

로 매년 절반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어 일자리창출 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군은 내년에도 일자리사업에 따른 예산의 추가 편성 여지는 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만 편성한 상태여서 참여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 일자리사업은 열악한 재정여건상 국·도비 지원 없이는 어려움이 많아 앞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사업을 발굴해 군 자체적으로 영구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경제도시과

경제진흥담당 670-2707

# 여성결혼이민자 고국방문 지원

## 우리군 2013년 1월2~18일까지 접수

우리군이 올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게 고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한다.

군은 생활형편이 어려워 결혼 후 친정을 다녀오지 못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관내 주민으로서 의욕적인 삶을 살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천8백만원을 들여 관내 거주 2년 이상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5가정 20여명(배우자 및 자녀 포함)을 고국에 보내줄 계획이다.

친정나들이를 원하는 여성결혼이민자중 생활형편이 어렵고 결혼 후 관내 거주 2년 이상인 가정 또는 이미 지원받은 가정은 지원받은 후 5년이 지난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가족과 함께 왕복항공권과 국내여비를 지원해 주며, 2013년 1월2일부터 1월18일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부서에서 신청을 받는다.

현재 양양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7개국 13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2001년부터 친정보내기 사업을 통해 70가정 222명의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친정나들이를 다녀와 한국생활에 정착하는 등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군은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기 외에 올해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여성결혼이민자 나라별 모임지원, 이웃사촌 결연지원,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등 4개 사업에 9천1백만원을 투입해 추진하며, 여성회관 교육교실, 어린이 체험학습 등에 다문화가정이 참여시 무료로 지원하는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을 위해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담당 670-2370

# 공항시설사용 감면혜택 확대

## 양양국제공항, 2014년부터 시행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지사장 윤철환)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발맞춰 신규 취항 및 증편 운항 시 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의 감면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선 소형 항공사는 착륙료 면제대상 노선을 현행 양양~김해·울산노선에서 양양~김포·제주·광주노선으로 확대하고 국제선은 신규노선 취항과 증편 시 1년간 감면해주던 공항시설사용료를 3

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감면제도는 2013년까지 적용되며 새로 확대되는 제도는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된

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지사는 2013평창스페셜동계올림픽과 최근 국제선 증가에 따라 소방능력이 우수한 항공용 대형 화학 소방차를 배치 받아 비상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 “내년도 부처님의 자비가 비추길”

낙산사 지난 13일 후원인의 밤 행사 열어



낙산사가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무산복지재단의 지역복지사업에 관심과 사랑을 전한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후원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무산복지재단(이사장 정념스님)은 지난 13일 오후 6시30분 낙산유치원 강당에서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갖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후원인의 밤 행사에는 낙산사 상락원, 낙산노인복지센터, 양양군노인복지관, 무산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도 참석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무산복지재단은 올 한해 관내 노인 복지를 비롯해 아동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어려운 이웃들의 사회안전을 촘촘히 엮어내는 역할을 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산복지재단 이사장인 정념스님은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무던히도 땀 흘리며 애써 온 여러분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계사년인 내년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지역사회 전체를 골고루 비추도록 신명을 다하겠다”고 축원했다.



사진전문가 / 최대영의 우리고장 돋보기



겨울철 김장담그기 ‘훈훈’ 양양군새마을부녀회 봉사활동

매년 겨울이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줄 김치 담그기 행사를 열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새마을부녀회는 김장김치 담그기

## 제4회 국제아동미술 교류전 열려

한중일 아동작품 전시...교류 폭 넓혀



한국미술협회 양양지부(지부장 최낙민)가 마련한 제4회 한중일 국제아동미술 교류전이 열려 아동들의 국제교류 폭을 넓혔다.

지난 3~5일까지 문화복지회관 1층 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교류전에는 양양초교 어린이들의 작품 48점을 비롯해 중국 39점, 일본 30점 등 지난해보다 많은 작품들이 전시됐다.

특히 지난해에 참가하지 못했던 중국 양양구 어린이들의 작품이 올해는 전시돼 한중일 어린이들의 생활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에 열린 전시회에는 양양초교 어린이들을 비롯해 지역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 작품을 감상했다.

최낙민 지부장은 “국제아동미술 교류전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미술의 관심을 높이고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내년에도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술협회 양양지부는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며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교실 운영 등 저변확대에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다.

### 양양도서관 겨울독서교실 운영

내년 1월8~11일...21일까지 선착순 모집

양양도서관(관장 전인희)이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내년 1월8~11일까지 4일간 ‘2013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한다.

관내 초등학교 4~5학년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독서교실에서는 ‘도서관에서

우리 전통과 만나다’ 라는 주제로 자료의 이용법과 전통문양과 우리종이를 이용한 입체 북 만들기, 우리가락과 전통놀이 등 우리전통을 매개로 한 새로운 독서관련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인희 도서관장은 “이번 독서교실을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 전통과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양한 활동으로 표현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무장강도 대처 모의훈련

양양우체국, 현장감 있게 진행



양양우체국(국장 김간철)은 지난 5일 속초경찰서 양양지구대 및 경비업체와 함께 무장강도 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특히 점심교대, 업무마감 시간 등 취약시간대를 노린 무장강도가 침입한 상황을 가정해 비상신고 체제 작동과 우체국과 경찰서 및 경비업체간 긴밀한 공조체제로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을 가정해 현장감 있게 진행됐다.

한편 양양우체국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공헌사업도 왕성하게 펼치고 있다.

### 무산 작은 음악회 열려

서울팍스오케스트라 공연 박수갈채



무산복지재단이 마련한 무산 작은 음악회가 지난달 24일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서울팍스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무산 작은 음악회는 모처럼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연주를 선보이며 늦가을 정취를 한껏 선사했다. 특히 무산지역아동센터 학생들도 공연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음악회에는 정상철 군수와 김택철 군의회 부의장, 김양수 강원도의원, 정념 무산복지재단이사장을 비롯해 많은 주민들이 객석을 채우는 등 호응도가 높았다.





가열려 진진한 이웃간의 정을 싣티운다. 올해도 양양군새마을부녀회는 겨울을 맞아 손맛과 정이 듬뿍 담긴 김장김치를 담가어 이를 비롯해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선전'

여수엑스포 개최 불구 7만2,176명 다녀가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이 여수엑스포 개최 등 수학여행단 쏠림현상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에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2일 현재 박물관 입장객수는 7만2,176명으로 3,600여만원의 입장료 수입과 800여만원의 기념품 판매수익 등 총 4,4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군은 박물관 입장객의 절반이상이 초·중·고 수학여행단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지난 3월 수도권 및 충청권 5,500개교를 대상으로 오산리 유적에 대한 관람을 안내하고 홍보한 데 이어 관광업체, 숙박업소,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5만8,000부의 리플릿을 제작·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에 나섰다.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토기퍼즐 등 체험코너와 야외 데크시설 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내년에 2억원을 들여 체험용 움집 1동을 추가로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200본)해 관람객들에게 과거로의 여행 등 흥미를 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호응도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올해는 문화학교,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박물관 답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등 총 20회에 걸쳐 530여명의 주민들이 박물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여수엑스포 개최로 인해 전년보다 관람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 초부터 SNS와 홍보물 제작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고 말했다.

▶문의 시설관리사업소 선사유적담당 670-2548

### 향토사학자 이재풍의 우리고장 탐방

遊戱謠 (유희요)

정겨운 우리 놀이 노랫말을 소개합니다.



마-31. 이(흡혈 기생충)

올해는 이 잡는 해

모두 속옷(팬티) 벗어라

이 잡는 손톱 끝에 피가 묻는다.

※ 한자로는 蝨(슬)이라 합니다.

웃지도, 함부로 들어 내놓고 말할 수도 없는 지난 날 이야기.

특히 겨울이면 한번 입은 옷을 자주 갈아입지 못하다 보니 자연히 피 빨아 먹는 기생충 '이'가 많았습니다.

몸이 가려워 긁적 긁적 하다 손에 어떤 것이 집힙니다. 꼭 쥐고 손톱에 넣고 재빠르게 엄지손가락끼리 압박시킵니다. '톡' 소리가 납니다.

어떤 때는 옷을 벗어 숲불이 담긴 화로위에 두 사람이 팽팡하게 평면되게 잡아당기며 골고루 죄임을 합니다. 잠시 후 그 뜨거움에 이 들은 기어가다 그만 떨어집니다. 이때 대화 한 토막 소개하면 '탁'소리가 나면 "내일 날씨가 청명하겠구나." "또 '피' 소리가 나면 "으응 날씨가 갓갓구나." 일기예보 감으로 삼았습니다.

또 이웃 아낙네가 놀러오면 할머니는 그의 무릎에 누워 머릿니 잡기를 청합니다. 일상으로 예의(?)상 그렇게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시원하네 시원하네" 합니다. 그런 것이 먼 옛 이야기가 아니었고 바로 몇 십년 전 우리 주변의 이야기였습니다.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성금 전달

백혈병 투병 황예찬군에 600만원



정동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장이 지난 4일 군청을 방문해 정상철 군수에게 백혈병 투병중인 황예찬 어린이의 후원금으로 600만 원을 전달했다.

### 자유총연맹 양양지부 장학금 기탁

정준화 자유총연맹 양양군지부장이 지난 11일 양양군청을 찾아 정상철 군수에게 지역인재육성에 써달라며 현산장학회 장학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 새마을부녀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새마을부녀회(회장 김봉순)가 김 판매로 올린 수익금 1백만원 전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지난 5일 양양군청을 방문해 정상철 군수에게 전달했다.

### 양수발전소 생필품 전달

양양양수발전소 한마음봉사단(단장 이상민)은 지난 12일 서면관내의 저소득 12가구에 쌀과 라면, 잡곡 등 6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 우리군 간이상수도 확대

### 2천여명 미급수...내년 3개 마을 설치

우리군이 통합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급수 지역에 대해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양양읍 임천리(387-1번지)에 통합상수도를 설치하면서 1일 1만6,137㎡(시설용량 21,000㎡/1일)로 급수량을 늘려 현남과 서면일부 지역까지 총 2만3,004명(군 전체의 80%)의 주민이 혜택을 보고 있는 가운데, 상수도 급수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이상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설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마을상수도는 11개 마을에 483가구(1,466명), 소규모

급수시설은 41개 시설에 877가구(2,322명)가 1일 1,339㎡를 공급받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2천여 주민들을 위해 향후 추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도 3억 9,500만원을 들여 3개 마을에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 5월부터 기존에 청원경찰이 담당하는 검침업무를 15명의 주부검침원으로 교체해 운영한 결과, 주민들의 민원이 눈에 띄게 줄었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돼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상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670-2521

##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

### 우리군 지난 14일부터 본격 시행

우리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군은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납부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개선요구를 반영, 지난 1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지 금액만 카드결제 되는 방식으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부터 적용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에 접속하거나 세무회계과에 방문,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면 된다. 사용가능한 카드사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등 10개사이며 나머지 3개 카드사(수협, 광주, 전북)은 내년 상반기에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문의 세무회계과 징수담당 670-2145

## 지방세 고질체납 강력 대응

### 총 27억여원 달해 징수 독려

우리군이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공매처분, 변호판영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현재 체납액은 도세 9억 100만원, 군세 18억3,400만원 등 총 27억3,500만원으로, 이는 군 전체 지방세 수입액의 10%에 달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별징수기간을 정해 체납액 정리 목표율(30%)을 설정, 1,128건(18억 2,800만원)에 대해 부동산과 차량, 채권 등을 압류했으며, 13건(2,200만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234대 체납차량의 변호판을 영치했다.

특히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36명, 8억4,80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와 함께 직접방문을 통해 체납처분 해제와 함께 분납해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체납사유 정밀분석을 통해 악의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제1금융권 은행 대상 전자 예금압류를 실시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한 성실납부를 유도해 5억5,800만원을 징수한 만큼 앞으로도 상담을 통해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등 체납자별로 차별화 전략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세무회계과 징수담당 670-2145

## 수동골 도농교류센터 준공

### 도시민 관광활성화 기대...해양체험관도 조성



우리군이 지난 14일 현남면 지경리에서 수동골 권역사업으로 추진한 도농교류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해부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된 수동골 권역사업은 총사업비 24억6,700만원이 투입돼 도농교류센터를 비롯해 해양체험관, 스포츠체험장 등 도시민들이 쾌적하게 휴양하며 즐길 수 있는 테마로 조성됐다.

1층에 마련된 도농교류센터는 지역특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시관 등이 갖춰졌으며, 해양체험관은 1.2층으로 나뉘 바다를 테마로 한 다양한 주제

들이 선보인다.

특히 해양체험관은 바다와 인접한 장점을 살려 해양관련 체험 및 가족단위 숙박시설이 조성돼 도시민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이와 함께 스포츠체험장은 이곳을 찾는 도시민들이 풋살과 족구 등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 시설로 마련됐다.

수동골 권역사업이 도농교류센터 준공으로 1단계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지역발전에서 소외됐던 지경리와 원포리, 임호정리, 입암리, 하월천리 등 수동골 권역에 포함된 농촌마을들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수동골 권역 주변에 해양심층수 업체인 워터비스가 재가동되고 있는데다, 하월천리를 중심으로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이 늘어나 주민들의 소득기반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은 수동골 권역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3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지난 4월 스포츠체험장을 완료한데 이어 도농교류센터와 해양체험관을 준공했으며 오는 2014년까지 화상바위 물놀이공원, 갯바위경관조성, 쉼터 등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담당 670-2336

## 우리군 누수율 줄이기 총력전

### 전체 21.4% 새...노후관로 교체 시급

우리군이 통합상수도를 운영하며 급수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노후관로에 따른 누수율 줄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통합상수도는 연간 4,922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며 누수율은 1,029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21.4%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현재 전체 인구의 82%에 대해 통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말까지 급수된 양은 1만6,137톤으로 여름 성수기의 일시적 수요급증 사태를 제외하고는 누수를 감안하더라도 공급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상수도 급수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는데다, 향후 대형 관광시설과 전원주택지 조성에 따른 수요가 크게 늘 전망이어서 누수관리에

적극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누수는 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내구성 저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누수지점 정비시마다 인접지역 누수발생이 반복되고 있으며, 급수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의 수압증가로 누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은 이에 따라 올해 1개반 3명으로 누수탐사반을 운영하며 누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해 지난해보다 4.78%를 저감했으나, 근본적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관 교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상수도관로 총 연장은 276km로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교체된 상수관로는 16.2km에 불과해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한 형편이다.

▶문의 상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670-2521

## 폭설·한파 대비 농작물 대책 추진

### 내년 3월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

우리군은 올 겨울 잦은 폭설과 한파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자,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피해 예방에 나선다.

군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축산시설 등의 파손 및 붕괴와 한파에 따른 사과, 복숭아, 포도 등 과수목의 동해 피해발생에 대비한 농업재해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을 총괄로 5개 팀으로 구성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대책반은 기상특보 발령 시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해 상황 종료 때까지 비상체제로 전환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시설물 피해경감을 위해 비닐

하우스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개선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버섯재배시설은 '농가보급형 표준설계도'에 의해 설치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노후축사, 간이축사 및 비가림시설은 대설시 축사지붕의 눈 쓸어내리기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또 맥류는 적기 파종, 균형 시비, 균일한 복토작업 등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채소류는 지역특성에 알맞은 작물을 선택해 적정온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하고 과수류는 땅속에 매몰 또는 복토하거나 수관부위를 피복해 월동에 대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올 겨울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은 가운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많고 지형적인 영향으로 눈이 많이 내리며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 그 어느 해보다 폭설과 한파 피해가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담당 670-2701



# 우리군 스포츠마케팅 '시동'

## 올해 13개 대회 유치...사이클경기 8억 효과



우리군이 사이클경기장 준공을 계기로 올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 13회에 걸쳐 전국 대회를 비롯해 도 단위 이상의 스포츠경기를 유치한 결과 253개 팀 5,817명의 선수들이 지역을 방문, 식당과 숙박업소의 경기부양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양양사이클경기장이 준공되면서 전국 실업사이클대회를 포함해 6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배드민턴,

축구, 게이트볼 등 7개의 도 단위 대회가 열려 본격적인 스포츠 마케팅 시대를 맞았다.

KBS배 전국 사이클선수권대회의 경우, 대회 시작 전 전지훈련, 적응훈련 등 연인원 5,000여명이 머물면서 낙산지구를 중심으로 한 시내권 숙박업소, 음식점, 주유소 등 전반적으로 8억여원의 직접유입과 지역경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 '효과 만점'이라는 평가다.

군은 올해 13개 대회 개최를 위해 2억4,300만원을 지원한 반면,

10배 이상의 경기부양 효과를 봤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각종대회와 전지훈련 팀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숙원인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연내 착공될 예정이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개선과 전지훈련지로 선호하는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더 굵직한 대회개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내년에도 전국사이클대회 등 지역경기 부양 파급효과가 높은 전국단위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동시에 우리군만의 특성화가 가능한 전국 중중촬영대회, 전국 요트대회 등을 상설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전체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와 BMX시설을 포함한 자전거 테마공원도 조성될 예정인 만큼 연중 많은 동호인들이 찾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 670-2731

# 우리군공무원노조 창립 본격 활동

## 윤주석 위원장 선출...“투명한 조직 만들기”



우리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지난 11월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6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노조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윤주석 창립준비위원장을 초대 공무원노조위원장으로 추대했으며, 탁동수 홍보담당을 수석부위원장, 최태섭 대외협력담당.전성호 관광기획담당.최윤선 통합조사관리담당을 부위원장에 선출했다. 사무국장에는 김철래 전략사업담당이 선임됐다.

노조는 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정치성을 배제한 방향성을 제시한 뒤 △건강하고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부당과 불법 기 등을 기치로 내걸었다.

윤주석 위원장은 창립 선언문에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군이 글로벌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발전 원동력이 필요

한 상황에서 오늘 창립한 노조가 지역발전의 기틀이 되고자 한다"며 "노조원들의 권익증진을 기본으로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모두의 힘을 모아 나가자"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따라 그동안 안고 있던 내부적인 문제점을 비롯해 각계각층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작은 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규약제정과 임원선출, 회원 자유토론을 실시한 후 마무리하고, 향후 노조설립신고와 함께 직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취합해 집행부와 본격적인 교섭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당분간 외부와의 연대를 지양하고 내부의 문제를 발전적으로 다뤄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군공무원노조 가입 현황은 전체 가입 인원 412명 중 310명이 가입해 75.2%의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 한파 대비 행동요령

영하 5도이하의 추운날씨가 지속되면 수도계량기가 동파되고수도관이 어는 경우가 늘어나므로 각 가정에서는 수도관과 계량기를 보온하여 동파를 예방합시다

### ■ 수도계량기 및 관 보온

-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헨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함
-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 하므로 외부에는 테이트 등으로 밀폐하여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합시다.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한 두방울씩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방지하여야 함

### ■ 수도시설보온

- 마당 및 화장실 등의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주고 앞 쪽의 수도꼭지는 항상 열어 놓고 뒷 쪽은 열고 잠급시다.

### ■ 수도계량기가 얼었을경우

- 얼어붙은 수도계량기 및 배관은 헤어 드라이기나 15도 정도의 물로 시작하여 점차 뜨거운 물을 사용하여 녹여야 합니다.

# 양양요트학교 공인교육기관 선정

## 대한요트협회 전국 4곳...요트 활성화 기대

양양요트학교(교장 김순교)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대한요트협회 요트공인 교육 기관으로 선정돼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요트공인 교육기관 선정은 지난해 12월 요트 면허시험이 국가공인 요트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개정된 수상레저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대한요트협회가 국가 표준 요트교육 프

로그램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표준화된 요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21개 요트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심사에서 요트 조정면허 면제교육기관까지 3개 영역에 걸쳐 모두 인증을 받은 곳은 양양군을 비롯해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전국 4개 지역으로 양양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모두 경남에 위치해 있다.

이에 따라 양양요트학교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지정돼 강원도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의 요트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양양요트학교의 분야별 인증 영역은 딩기, 크루즈, 요트조종 면허시험면제교육 등 3가지 영역이며, 공인교육 기관으로 인증되면 공인 교육기관 현판과 인증서를 비롯해 인증마크, 대한요트협회에서 출간한 요트교육 프로그램, 로그북, 지도자 매뉴얼 등이 제공돼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게 된다.

강원도요트협회(회장 김순교)와 양양요트학교는 이에 따라 지난 7일 오전 11시 손양면 수산항 요트클럽하우스에서 공인요트 학교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동해안권 요트전문교육기관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문의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 670-2731



# 남대천 어족자원 늘어나

## 5년간 1,850만 마리 종묘 방류

두 차례의 태풍 피해로 생태계 교란을 겪었던 남대천이 지속적인 방류로 어족자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6억6,000만원을 투입해 1,850만 마리의 종묘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어종별로는 은어가 137만 마리

, 뱀장어 15만 마리, 재첩 147만 마리 등이며 올해도 132만 마리의 붕어와 다슬기도 방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남대천에는 뱀장어, 붕어, 폭치, 버들치, 메기와 회귀성 어종인 연어, 은어, 황어를 비롯해 재첩, 다슬기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군은 앞으로 남대천 어업계 소득과 직결되는 재첩과 자원량이 급감하고 있는 은어를 중점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특별단속 2회와 수시단속 45회를 실시해 불법어업 2건을 검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류사업과 동시에 수산자원 남획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해양수산과 자원개발담당 670-2744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외국에서도 운전!

해외여행 및 출장, 어학연수 시 한국운전면허가 있으면 그 나라의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세계 95개국에서 직접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장소 : 도로교통공단 강릉운전면허시험장
2.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3. 수수료 : 7,000원
4. 발급소요 시간 : 10분
5. 구비서류

구비서류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3.5×4.5cm) 칼라반 명함판(3×4cm) 1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3.5×4.5cm) 칼라반 명함판(3×4cm) 1매,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신분증(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본가능), 위임장, 여권에 표시된 영문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함
외국 국적의 국내면허소지자가 국제면허 발급 시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

-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해야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발급 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나라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전화 1577-1120

### 강릉운전면허시험장

양양읍 공고 제 2012-5호

##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 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일

### 양 양 읍 장

1. 사업명 : 『김기화』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산26번지
3. 도로길이 : 38.0m
4. 도로폭 : 3.45 m
5. 도로면적 : 131.0㎡
6. 지번별 도로부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필지		7,438.0	131.0		
양양읍 청곡리	산26	임야	7,438.0	131.0	김기화 이진숙	도로지정동의

## 미래농업대학 교육생 모집

### □ 과정개요

- 과정명 : 미래농업대학과정
- 모집인원 : 30명
- 교육기간 : 6개월(2013. 4. 1 ~ 9. 27) / 합숙
- 전형방법 : 군수 추천
- 지원자격 : 도내 거주 19세 이상 50세 (남·여)  
- 영농정착 의욕이 높고 미래농업 선도자의 자질을 갖춘자로서  
단체생활에 결격사유가 없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자

### □ 교육생 선발

- 추천기간 : 2013. 1. 2 ~ 2. 28
- 구비서류 : 군수 추천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
- 합격자발표 : 2013. 3. 15(금)  
※ 개별통지 및 미래농업교육원 홈페이지게시(www.ares.gangwon.kr/atc)

### □ 주요 교육내용

- 농산·원예·특작 : 재배기술, 소득작목개발, 수확후 관리 등
- 가공·유통·수출 : 농산물 안전성관리, 마케팅전략, 수출농업 등
- 농촌관광 : 개발유형, 시설배치, 고객관리 등
- 축산경영 : 축종별 사양기술, 조사료생산, 인공수정 등
- 농업정보화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디지털 카메라 활용법, PPT 활용능력 등
- 농기계·농용장비 : 농기계운전, 굴삭기, 지게차 등
- 일반교양 : 농업인이 알아야할 세금, 법률, 리더쉽, 전통문화 등
- 현장실습 : 도 연구기관, 선진 영농법인, 선도농가

### □ 교육생 특전

- 교육비 전액 도비지원(수강료, 숙식비, 주말 왕복교통비 등)
- 선진농업급 해외연수(10일 이내)
- 농업기계 등 각종 자격증 취득기회 부여
- 농어촌진흥기금,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등 정책자금 우선지원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하는 '겨울철 전기안전 10계명'

1. 난방용 콘센트는 적정 용량에 맞게 사용한다.(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2. 난방용품은 가급적 같은 시간대에 1개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3. 전기장판, 히터 등의 난방용품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4. 옷장, 이불, 소파 등의 가연성 물질 가까이에서는 난방용품 사용을 금한다.
5.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은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가동한다.
6. 난방용품 구입 시에는 KS 또는 제품승인을 받은 제품을 구입한다.
7. 난방용품 전선이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8. 플러그는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되었는지 확인한다.
9. 가습기는 될수록 콘센트나 기타 전기제품과 거리를 두어 사용한다.
10. 그밖에 전기안전 문의는 언제든지 1588-7500(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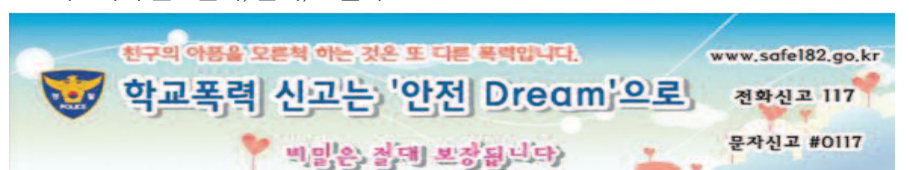


### ■ 배경

- 학교폭력 체감안전도 및 「강원 117센터, 안전Dream」 등 경찰예방활동에 대한 인식부족
-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위주의 피해 회복적 관점으로 전환

### ■ 내용

- 지난 6월 18일 24시간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는 117신고센터 개소
- 117신고센터는 학교폭력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의 상담창구 역할수행과 동시에 피해 학생을 신속히 구제하고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수사
- 학교폭력 신고전화, 문자, 포털 주소



※ 신고방법 : 국번없이 117, 인터넷 안전드림, 문자신고 #0117 통화요금 무료  
“망설임 없는 신고로 학교폭력 근절”

민원서류 발급, 아직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민원24」는 1년 365일 24시간 켜, 사무실 등 어디서나 필요한 민원을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열람·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정부민원창구 「민원24」  
www.minwon.go.kr 은  
경제적이고 편리합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수수료 무료 (56종)
- 전입신고, 지방세납세증명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 (3천여종)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인터넷으로 즉시발급 (38종)
- 인·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절차 안내 (5천여종)

행정안전부